

202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2020. 7. 2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며,

무거운 숙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4월 코로나19로 촉발된

금융분야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이제 상당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과거 정상상태로 되돌아 가기에는

아직 너무 길이 멀어보입니다.

어쩌면 이전상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너무 많은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할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 및 당면도전

코로나19는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단기적 경제분야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비대면·디지털화 가속화 등으로
경제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물부문에서는
비대면 산업, 의료·바이오,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부각될 것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관련 기술 확산 등으로
금융산업 재편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인터넷 등의 분야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미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초대비 주가 상승률 비교 :

(코스피)+2.46% (주요 인터넷주)+90~200% (주요 바이오주)+55~65%

강한 실물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IT인프라 및 소프트 파워 강국인
우리 경제·금융에
커다란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는 모두
양극화 심화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가중되면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라고 하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이번에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초저금리·유동성 확대에 의한
금융불안요인 누적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수익·고위험 추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非은행권에 누적되고 있는 리스크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금융정책 추진방향

나일 강의 범람 속에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했듯이,
인류는 끊임 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뒤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금융부문에서 중점 관리하며 준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

첫째,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혁신적 도전을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 등 新성장 산업,
新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GVC 변화에 따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사 저력을 보여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원활한 자금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공모펀드 활성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 준비

둘째, 금융산업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금융으로 탈바꿈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판매채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도 대비하여,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셋째, 위기 이후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촘촘히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간 8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등 “기회의 사다리” 확충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고객차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에 대한 해피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금융부문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전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보증 등과 관련된 단기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고객재산 보호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도

우리의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금융정책방향도 이에 맞춰 계속 수정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금발심 논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첫 번째 화두로서,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지속하여,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